

광주서 AI 스타트업-투자사 만남... 투자유치 기회의 장

광주AI사업단 '파트너십 데이' 어포나티 등 스타트업 10개사 참여 사업모델 소개·매칭 기회 제공...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등 큰 관심

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스타트업들이 광주에서 투자사들과 만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유치에 나섰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 사업단)은 21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컨벤션홀에서 AI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의 만남의 장인 'AI 파트너십 데이'를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파트너십 데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사업단이 함께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중 하나로, AI 스타트업과 사업모델을 투자사에 소개하고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어포나티(주), (주)제이데이터, (주)제이데이터플라이, (주)제이데이터, (주)제이데이터플라이, (주)제이데이터, (주)제이데이터플라이, (주)제이데이터, (주)제이데이터플라이 등 미래가 기대되는 AI스타트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사업모델 검증 및 투자유치 멘토링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스타트업의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40개의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가 참여했으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업과 투자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들도 다수 참석하는 등 스타트업들에게 큰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우리나라 대표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선 특히 AI(사)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 등을 받아 성장 중인 (주)제이데이터, (주)제이데이터플라이, (주)제이데이터 등이 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AI 스타트업들의 제품 전시를 함께 진행하고, 투자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4060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소셜 기반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한국어 문장 교정 AI 솔루션, 실시간 이상행위 분석 통합 플랫폼, AI 기반 E-모빌리티 배터리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AI 기술 기반의 서비스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 투자사 관계자는 "AI 스타트업들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AI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오상진 AI 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AI 스타트업이 투자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AI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AI 기업 투자유치설명회(IR) 'AI 파트너십 데이'에 참석한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과 AI 기업, 투자사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제공>

광주 캐릭터 '빛돌이' 활약 기대하세요

온라인 홍보 요원 재활동... 각종 홍보영상물서 흥·끼 발산

2000년생 광주시 캐릭터 '빛돌이'가 무한 귀여움을 장착하고 화려하게 컴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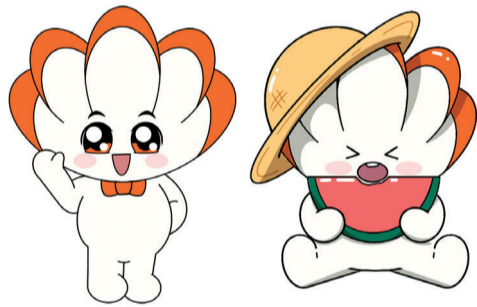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스타그램gwangju_official)를 통해 캐릭터 '빛돌이'의 재활동 소식을 알렸다.

2000년 1월1일 생으로 '광주의 빛'을 발산하며 사랑받았던 빛돌이는 광주의 문화와 매력을 알리기 위해 새로운 열정을 재장착하고 돌아왔다.

빛돌이는 온라인상 화제의 '빼빼까' 춤을 추는가 하면 무등산 계곡 여름휴가로 새가말개탄 피부를 등장하는 등 깜짝 변신을 선보이며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형태의 짧은 동영상(세로형 숏폼)을 통해 공식 복귀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광주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광주문화관광 캐릭터 '오매나'를 부러워하며 본격적인 대결도 예고했다.

빛돌이는 언제 어디서든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활짝 열린 '큰 귀'와 맑지만 은은한 광기가 있는 '눈빛',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입' 등 더욱 새로워진 매력으로 온라인 활동을 이



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도 문화관광 캐릭터인 '오매나'와 '빛돌이' 두 캐릭터의 신규 조화를 적극 활용해 시장 홍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광주의 모든 정보와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두의광주(news.gwangju.go.kr)'를 방문하면 빛돌이의 서사가 담긴 페이지가 열리고, 빛돌이의 귀여운 외모 특징, 혈액형, 출신, 취미, 관심사, MBTI 등 빛돌이 프로필도 한눈에 볼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외국인 주민 정착 수행기관 2→4곳 확대

목포 전남이주민지원센터 등 추가... 고충 상담·한국어 교육 등 운영

전남도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수행기관으로 목포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 순천 로드웰드비전 등 2곳을 신규 지정했다.

전남도는 21일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추가 공모사업에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목포), 로드웰드비전(순천)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201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5만 3506명으로, 3월보다 3074명이 증가했다. 이에 전남도는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역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용 접근성, 사업 추진 실적 등 종합 심사해 선정했으며, 개소당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동부와 서부에 위치한 단체를 1개소씩 선정해 관역별로 외국인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수행기관을 통해 기존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외에 한국어-안전·건강 교육, 문화·복지 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 광양 외국인 노동자센터,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목포·영암지부를 선정, 운영토록 해 고충 상담 307건, 출입국 상담 172건, 통·번역 73건 등 총 1000여건을 지원했다. 또 전남 이주민-외국인 종합센터에 통합콜센터 구축을 목표로 다자간 통역 시스템을 준비하고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출입국·일상생활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상담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만권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총력

전남도, 연구용역 보고회... 추가 지정 대응 전략 등 논의

전남도가 지난 20일 도청 정철실에서 지자체, 이차전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국가 이차전지 산업발전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과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에 대한 대응 전략, 도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

튬, 니켈 등 광물은 특정 국가에 집중해 있고, 최근 각 나라의 보호무역 강화와 자원 무기화 등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광양만권은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원료 소재 생산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선 핵심 광물 확보 및 국산화가 사실상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가적 이차전

지 공급망을 완성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재산업으로 특화된 전남을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전남도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육성계획서 작성과 선도기업 투자유치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배터리 광물의 정련·제련이 추가 지정되도록 정부 수요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에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차전지, 수소 등 첨단소재산업의 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신규 지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